"모든 중생 성불할 수 있다"

경전 속의 禪 사상 37

법화경 ①

글쓴이

이기운
〈동국대 강사〉

가르침 종합 '教觀 正法' 체계 완성
육바라밀 수행 삼매체득 나타내

법화경 만큼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애독되어진 경전도 드물 것이다. 일찍이 삼론법상 화엄종의 학자 선사에 이르기까지 두루 이 경을 연구하고 주석서를 내놓았고 마침내 중국에서는 천태가(天台家)에서 소의경전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아마도 이 경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즉 이경은 기존의 경전들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화해하고 종합하여 비로소 하나의 거대한 정법체계를 완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소승 대승 연각 성문 보살의 사상을 방편과 진실이라는 조화의 틀 위에 교학적으로 체계화하고, 기존의 수행법인 수지 독송 해설 서사의 수행법을 선정삼매(禪定三昧) 체득의 수행으로 체계화하여 바야흐로 교관(敎觀)이 겸비된 경전이다. 그래서 역경가들은 이 경을 '정법화(정법을 설하는 경), 방등법화(방등의 가르침을 설하는 경), 묘법화(묘법을 설하는 경)' 등의 이름으로 불렀다.

법화경의 선정사상은 관(觀)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를 경에서는 삼매행으로 설하고 있는 것에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다. 이른바 깨달음이란 제법 실상이라는 우주만물의 진실된 실상을 깨닫는 것이니 이는 불지를 얻어야만 체득되는 경계이므로 보는 불지는 무량의처삼매속에 들어 부처의 세계 불지견을 열어보이고(開示) 그 불지견에 깨달아 들어가는(悟人) 갖가지 삼매행이 묘음보살행, 약왕보살행, 관음보살행, 보현보살행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서의 선정수행은 주로 육바라밀의 선정이 설해진다. 이와같은 선정사상으로 인하여 중국에서는 북제의 혜문(慧文) 혜사(慧思, 514~577)등의 선사(禪師)가 선정을 닦다가 법화경을 애독하게 되었고, 이어 천태대사(538~597)도 선정에 들어 법화삼매를 깨달아 개오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설잠(雪岑, 속명 김시습 1435~1493)은 〈연경별찬〉에서 '이 경에는 선가(禪家)의 뜻이 들어 있다'고 하는 등 법화경에서는 선정의 깨달음이 크게 중시된다.

현재 유통되는 법화경은 한역본으로는 축법호(竺法護)역의 〈정법화경(正法華經)〉, 구마라집(鳩摩羅什)역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그리고 사나급다(闍那笈多)역의 〈첨품묘법연화경(添品妙法蓮華經)〉의 세 본이 있는데, 이중 구마라집본의 묘법연화경이 비교적 쉬운 문장으로 법화경의 뜻을 잘 나타냈다고 평가되어 법화경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사용되어 왔다. 법화경의 범본 원전은 11세기 이전 필사본과 그밖의 단편적인 범본들이 전해오던 것을 모아 범어 원본을 복원한 범본 법화경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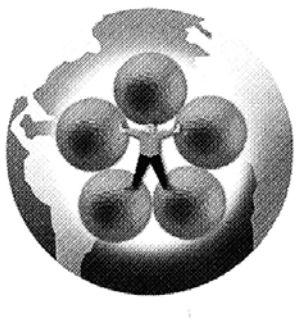
법화경에서 얻는 깨달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승(성문 연각)도 성불할 수 있다는 이승작불(二乘作佛)사상과 석가모니 부처님은 본래 구원겁전에서 성불했다는 구원실성(久遠實成)사상이라 할 것이다.

첫째, 방편품을 중심으로 한 법화경 전반부에서는 제법실상을 십여시(十如是)로 설하여 모든 중생이 동등하게 법계의 실상을 갖추고 있다는 일승 묘법이 밝혀져 있는데 이와같은 입장에서 볼때 법화경을 설하기 이전까지 무상과 공에 집착하여 부처가 될 수 없다고 비난 받았던 이승, 여인, 악인마저도 부처님의 자비방편과 진실의 지혜에 의하여 수기받아 장차 성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한 본 뜻이 일대사인연이므로 부처의 지견을 열어서(開) 보여주어(悟) 부처의 지혜에 들어가게(入)한다는 법화경의 임무는 이승이건 삼승이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해주고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놀면서 모래로 불탑을 만들거나 장난으로 불상을 그리거나 혹은 산란한 마음으로 '나무불'이라 하여도 조그마한 선심(善心)의 싹이 결국 발심하여 불도에 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아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불도에 이르게 하고 있다.

과학산책

통일장 이론 ②



자연계 존재하는 모든 힘
서로 조화 이루며 작용

지난호에서 우리는 근본적 접근을 하게 되면 차별보다는 통합으로 향한다는 진리를 물리학의 성공적인 모델인 양자장 이론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 양자장 이론은 자연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힘과 물질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려하는 통일장 이론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

물리학자들은 적어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세상에는 본질적으로 다섯 가지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힘은 전기장, 자기장, 강력, 약력, 중력이다. 각 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로 뉴톤에 의해 정리된 중력은 거시적이고 천문학적인 규모에서 중요하다. 이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차별없이 작용한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 질량은 곧 에너지임으로 높은 에너지를 가진 것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크기에 관계없이 강력하게 물체를 잡아당긴다. 너무나 에너지가 커서 빛 마저 강력하게 잡아당겨 빛이 빠져 나오지 못할 정도가 된 것을 블랙홀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로 맥스웰에 의해 전기력과 자기력이 통합된 전자기력은 전기를 띤 입자가 이에 반응한다. 광자(photon)에 의해 매개되는 전자기력은 원자구조와 화학 결합, 전자기 복사(빛, 전파)에 관여한다. 인체에서는 신경전달등과 같은 필수적인 신진대사가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자파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특히 고압선이 지나가는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인간의 신진대사가 교란되기 쉬워 건강을 해치기 쉽다. 강력은 원자 핵의 구조를 지탱하는 힘으로 근거리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그 작용범위가 핵안으로 국한되어있다. 강력은 그루온(gluon)에 의해 매개된다. 마지막으로 약한 보스 입자(weak boson)에 의해 매개되는 약력은 방사성 붕괴와 별의 에너지 생산 매커니즘에 관여한다. 모든 알려진 입자들은 페르미 입자(fermion)과 보스 입자(boson),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페르미 입자은 프랑크 상수라는 단위의 1/2의 홀수 배수 스핀(spin)을 가진 입자이다. 이 스핀 값을 갖기 때문에 페르미 입자은 파울리의 조화 법칙(Pauli Exclusion Principle)을 따른다. 파울리의 조화법칙은 파울리의 배타률이라고 하는데 어떤 두 개의 페르미 입자들도 같은 위치와 같은 시간에 같은 상태(스핀, 색전하, 각운동량 등이 모두 같은 상태)를 같이 차지할 수 없다라는 규칙이다. 저자의 생각으로는 같은 상태에 같이 놓일 수 없다는 것을 배타적이다라고 말하기 보다는 서로 조화롭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아 조화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상적인 물체의 많은 성질들은 바로 이 규칙을 따르는 페르미 입자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면, 화학시간에 배운 물질의 다양성 중에서 공통적인 성질을 찾아내는 주기율표를 회상해보면, 최외곽 궤도에 전자가 어떻게 분포되었느냐에 의해 그 원자의 성질이 정해짐을 기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외곽 궤도에 전자가 분포하는 방식은 파울리의 조화법칙에 의한 것이고 이는 전자가 페르미 입자이기 때문에 일어남으로 물질의 다양성은 파울리의 조화법칙을 따르는 페르미 입자에 의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다. 물질을 이루는 입자라면 떠오르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는 모두 페르미 입자이다. 쿼크, 경입자(렙톤, lepton), 중입자(바리온, baryon), 일반적으로 더욱 기본적인 입자들은 페르미 입자이다.

이와 반대로 보스 입자이란 정수배의 스핀을 가진 입자이다. 힘의 장(force field), 전달입자(carrier particle), 모든 기본적인 상호작용에 관여된 입자들은 보스 입자이다. 짝수개의 페르미 입자으로 되어 있는 입자들(중간자, meson)은 그 스핀이 정수배가 되므로 보스 입자이다.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페르미 입자 혹은 보스 입자이 될 수 있다.

조원희〈본사전략정보실장〉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와지만 18

말(馬)의 웃음 ③

윤회굴레 벗어날 수 있어

자아 · 집착 · 욕망 · 분별심 등
무명의 사슬 끊으면 해탈

어렸을 때 나는 스릴성 소설을 무척 좋아하여 불사신의 영웅들이 엮어내는 모험소설 같은 것을 정신없이 탐독해댔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대개 주인공들은 어느 장면쯤에 가면 영락없이 간악한 적의 손에 붙들려 손발이 묶인 채 극도의 궁지로 몰리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어코 도망치고야 만다. 이때 급선무는 물론 어떻게 해서든지 한쪽 손부터 빼내는 일이다. 이빨을 쓰던가, 감시자의 눈을 속여 교묘히 감추어두었던 연장을 쓰던가 하여 아슬아슬한 순간에 그는 마침내 이 일을 해내고야 만다.

우리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불교에서는 해탈에 이르는 길에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가르친다. 첫 단계에 이르렀다 해도 궁극의 해탈은 아직 멀지만 일단 보장된 셈이라고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첫째 도정의 성취' 혹은 '흐름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것이 앞에서 얘기한 한쪽 손을 빼내는 것에 해당된다.

결박에서 한쪽 손을 풀어내는 방법이 바로 '정념 수행'이다. 정념의 가장 근본적인 공덕은, 자아라고 생각하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점점 더 깊이 깨달아 가도록 만들어주는 데에 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언젠가는 '무아(anatta)'의 실상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지적 관찰이 아닌 진리의 직관이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되면 종래 자아에 관해 굴리던 고도의 지성적 사유 같은 것은 적절하게 초극해버릴 수 있게 된다. 이 단계에 다다르면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불법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은 깨끗이 사라져버린다. 동시에 어떤 형태이든 의례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망설이던 잠재의식도 사라져 버린다.

두 번째에 수행자는 '흐름에 들어선 자'로부터 '태어남이 한 번 남은 자'로 변모한다. 세상에 대한 그의 집착은 이미 현저히 약화되어 다시 몸받아 태어나야 하는 일은 한 번뿐인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을 지나서부터는 애착과 혐오는 단지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뿐으로 성가신 가치관 정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적극적인 고(苦)의 인(因)으로 발전되는 일은 없게 된다.

세 번째 도정을 성취하는 순간 감관적 욕망과 혐오가 완전히 파괴된다. 이 경지에 다다른 사람은 사물에 대해 더이상 그런 감정들을 느끼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사람 몸 받아 태어나는 일이 없게 된다. 이제 그는 '태어남이 끝난 자'이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낮은 수준의 다섯 가지 족쇄에서는 풀려났지만, 아직도 벗어나지 않으면 안될 더 높은 수준의 다섯 가지 족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이미 대단히 섬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일을 끝마치기 위해서 조금 서두르는 듯한 형태로나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명 역시 아직은 완전히 깨달은 것은 아니므로 어느 정도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윤회의 주역인 분별심은 아직도 희미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궁극인 해탈은 네 번째 도정을 성취하는 순간 비로소 실현된다. 이를 성취한 사람인 아라한은 이제 더이상 닦을 것도 해야할 일도 없다. 불사(不死)는 성취된 것이다. 첫 단계부터가 말처럼 손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겠지만, 누구나 이에 도달할 가능성은 충분히 지니고 있다.

오종욱 기자

통합불교 아미타종

창종공고

통합불교 아미타종은 불교의 대중화를 목표로 창종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종정	釋 智 山	
총무원장	釋 法 聖	
종회의장	釋 錦 峰	
사정원장	釋 唯 華	
교육원장	釋 淨 潭	
포교원장	釋 普 景	
예경실장	釋 錦 海	
총무부장	釋 法 眼	
교무부장	釋 柱 亨	
사회부장	釋 慈 光	
기획부장	釋 鍍 原	
재무부장	釋 眞 覺	
호법부장	釋 慧 眼	

불기2543년 10월 17일

통합불교 아미타종 총무원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7-28 승서빌딩 3층

전화 : 541-2108-9 / 팩스 542-2108

창종발기인

서울시 송파구	약사암	보 경	서울시 도봉구	류광사	윤순옥
서울시 동작구	기원정사	유 화	서울시 중랑구	약사암	권영애
서울시 동작구	보각사	주 형	서울시 송파구	중생사	정 담
서울시 강남구	기원정사	법 안	서울시 강남구	기원정사	보 혜
서울시 성북구	천관사	경 오	서울시 강동구	금강사	도 원
서울시 광진구	관음사	진 각	서 울 (중요무형문화재 104호)	서울 새남굿 교육보조사	이상순
서울시 강북구	대원사	도 관			
서울시 광진구	연등화사	세 안	경기도 포천시	청봉사	금 봉
서울시 관악구	성불사	대 혜	경기도 동두천시	수도암	청정화
서울시 도봉구	보리사	혜 정	경기도 동두천시	청룡사	유태희
서울시 서초구	관음사	보화심	경기도 안양시	정토사	혜 안
서울시 광진구	천진암	김애경	경기도 안양시	강화사	노범순
서울시 강북구	장군암	김종임	강원도 홍천시	금강사	혜 상
서울시 성북구	천신암	엄기순	충청북도 옥천시	보현사	도 광
서울시 강북구	약사암	장향순	광주광역시	문수사	법 일
서울시 강북구	천신암	장이순	전라남도 고흥시	보각사	도 연
서울시 강북구	계룡암	이경숙	전라남도 여수시	도선암	금 해
서울시 성북구	천황사	나영운	전라남도 화순시	옥려사	원 각
서울시 강북구	천상사	예봉자			
서울시 강북구	천신암	안은숙			

탈종공고

하기 승려는 귀 종단의 종지종풍에 따르지 못하기에 불기 2543년 10월 17일자로 탈종을 공고 합니다.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법하

중생사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200-11	허명선(정담)
약수사	서울 송파구 잠실 본동 208-8	허덕현(보경)
연화사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덕림리 산63	송창호(도일)
문수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496-16	기우근(법일)
도선암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1038번지	이재모(금해)
옥려사	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오유리 121-1	원태수(원각)
관음사	서울시 광진구 자양3동 553-82	김말자(보화)
청룡사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2동 665번지	유태희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천관사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5가 252-8	고재구(경오)